



# 종합 탄약 전문 업체 (주)풍산



대표이사 柳津

### (주)풍산 연혁

- 68. 10. 22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 설립
- 69. 12. 부평공장 준공, 동제품생산 개시
- 73. 3. 안강공장 준공, 종합탄약생산 개시
- 79. 4. 풍산기술연구소 설립
- 80. 7. 온산 신동공장 설립
- 82. 1. 육군조병창 인수, 동래공장으로 가동
- 84. 8. 반도체 리드프레임 신소재 PMC102개발, 미국특허 획득
- 88. 6. 기업공개
- 89. 3. '주식회사 풍산' 상호변경
- 89. 11. PMX Industries, Inc. 설립
- 94. 12. 풍산소재기술연구소 설립
- 97. 2. 합작법인 머스코-풍산(주) 설립

## 우리

나라의 대표적 방위산업체인 풍산은 5.56미리 소구경탄약에 서부터 8인치 곡사포탄에 이르기까지 우리군이 소요로 하는 탄약의 대부분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종합탄약 전문업체로 그동안 국내 방위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군의 전투력 향상과 자주국방의 조기실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풍산의 방위산업 참여는 탄약의 탄피소재로 쓰이는 동제품을 생산하면서 시작된다.

70년대초까지 우리나라는 일부 소구경탄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구경탄과 중대구경포탄약을 미국에 전량 의존하고 있었다. 북한의 가중되는 대남공세와 주한미군 철수 등 긴박한 안보상황으로 방위산업의 육성은 시급한 과제였으나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시장성이 불투명한 방위산업의 투자에 대해 당시 업계에서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968년 류찬우 현회장(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은 산업보국(産業報國)의 일념으로 국가경제발전의 토대는 기초 소재산업의 육성에 있다고 판단, 신동(伸銅)산업에 뛰어들면서 방위산업에도 참여하여 경북 안강에 종합탄약공장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柳 회장은 평소 '한 분야에 전념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겠다'는 전문제일주의의 신념으로 업종전문화에 일관해 왔다. 그 결과 풍산은 오늘날 세계유수의 신동기업이자 탄약생산 전문업체가 되었으며 동제품의 대량 생산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연이은 해외공장의 가동으로 국내외 설비능력과 생산규모에 있어서 세계 정상권과 어깨를 갈

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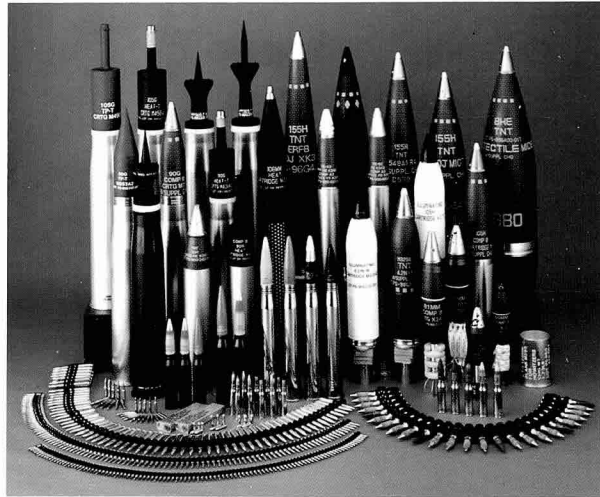
또한 풍산은 우리군이 소요로 하는 모든 군용탄약과 함께 스포츠탄 등 상업용 탄약을 생산하여 대부분을 수출하는 등 세계적인 종합탄약업체이기도 하다.

풍산이 경쟁력있는 탄약 전문업체로 발전한 것은 짧은 기간내 탄약생산의 수직계열화를 이룩한 데 있다.

탄피에 쓰이는 동소재는 풍산의 온산공장에서 생산 공급된다. 추진화약의 원료와 뇌관, 신폴, 링크, 관통자 등의 탄약부품은 자체 생산되어 탄종별로 계열화된 일관생산라인에서 완성탄의 충전과 조립, 포장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들 생산라인에는 독립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철저한 품질관리가 수행되고 있으며, 탄약 생산 전과정에서 공장에 상주하는 정부검사기관의 엄격한 검사를 필하기 때문에 최종품질은 정부가 보장하고 있다.

풍산은 현재 국내에 2곳의 방산 전용공장을 운영



◀ 풍산이 생산하고 있는 각종 탄약. 군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탄약을 생산하여 자주 국방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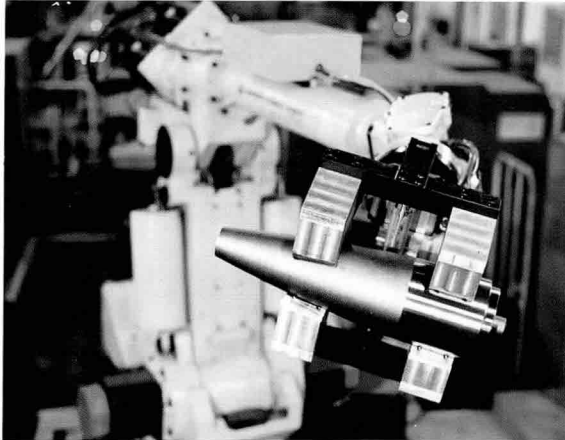
◀ 탄약용 신재. 풍산이 자체 생산하는 동합금 소재를 가공하여 안강과 동래공장에서 탄약생산에 사용하거나 소재형태로 수출한다

▼ (주)풍산 온산 공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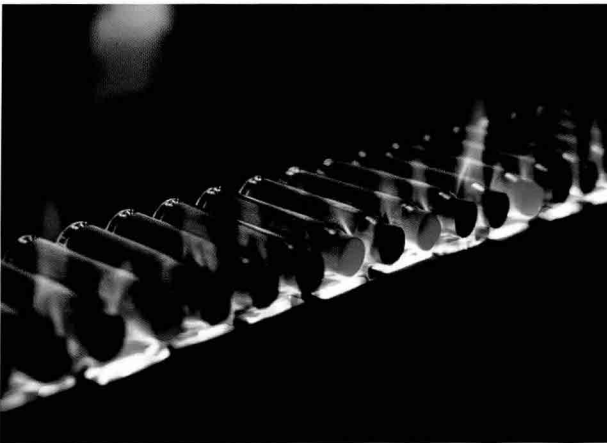




로봇라인으로 자동화된 155밀리 사거리 연장탄의 Warhead 가공



20밀리 발칸 포탄 탄피 열처리 장면. 압신된 탄피의 조직을 균질화하고 가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속적으로 소둔 열처리된다



하고 있다.

경주인근에 있는 안강공장은 권총탄에서부터 대공포탄, 박격포탄, 곡사포탄과 직사포탄, 함포탄 등 모든 종류의 탄약을 생산하는 세계 유수의 종합탄약공장이다.

부산 동래공장은 소구경탄과 스포츠탄을 전문 생산하고 있으며, 이곳에 정부로부터 지정된 교정검사센터가 위치하여 탄약의 품질관리와 대내외의 교정검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풍산은 탄약부문의 자급화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탄약의 개발과 성능향상을 위한 노력

을 기울여 왔다.

지난 79년 안강공장내에 설립된 '풍산기술연구소'는 많은 고성능 탄약개발과 성능개량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첨단정밀탄약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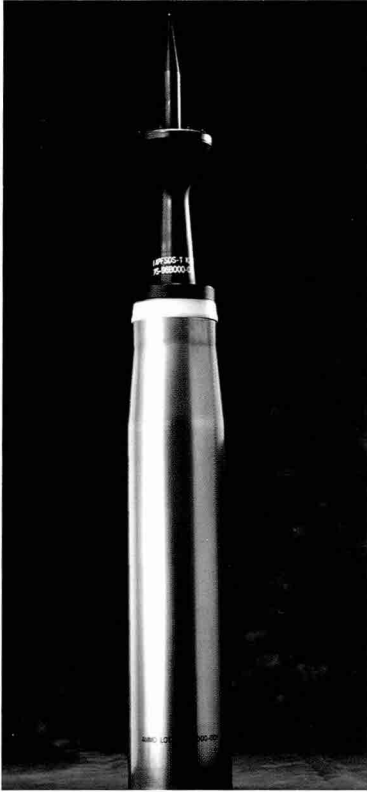
풍산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공동으로 개발한 신형 105밀리 날개안정철갑탄은 텅스텐합금 관통자의 운동에너지로 다중장갑을 관통함으로써 기존 대전차탄에 비해 장갑 관통능력이 40% 이상 향상되었으며, 120밀리 대전차고폭탄과 날개안정철갑탄의 개발도 진행중이다.

최근 개발된 신형 155밀리 자주포용 장사정고폭탄은 탄체미부에 Base Bleed를 장착하여 사거리를 00km까지 연장했으며 자폭기능과 장갑 관통능력이 향상된 유탄을 장입한 신형 DP-ICM탄도 개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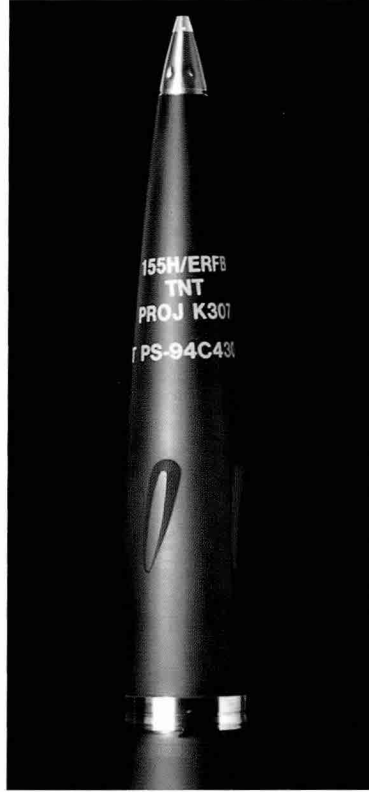
어 한국포병의 주력 탄약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외에 관통능력과 파편 분산효과가 향상되고 사거리도 연장된 20밀리 사거리연장탄과 정확도가 높은 함포용 30밀리 CIWS탄약을 개발하여 곧 공급될 예정이다.

풍산은 최근 탄체단조기술을 기반으로 안강공장내에 최신 단조설비를 새롭게 보강하여 전차 및 장갑차의 로드휠을 비롯, 각종 정밀단조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생산경험과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스포츠탄의 획기적인 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안정되고 항구적인 스



▶ 신형 105밀리 대전차 날개 안정 철갑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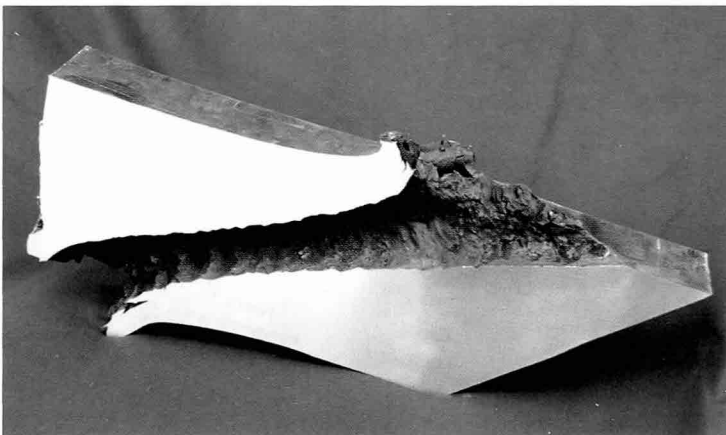


◀ 최근 개발된 신형 155밀리 자주포용 장사정고폭탄

포츠탄 시장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풍산은 지난해 방산부문을 포함하여 7,86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풍산은 방산부문의 가

▼ 풍산이 개발한 신형 105밀리 대전차 날개 안정 철갑탄이 480mm 철판을 관통한 장면



동률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신규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탄약부분품의 수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 축적

된 탄약 기반기술로 해외 지적소유권의 침해여지가 없이 전세계에 수출이 가능한 한국형 독자모델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선도해 온 풍산은 앞으로도 부단한 연구개발과 탄약의 성능향상을 통해 우리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 세계 유수의 종합탄약 메이커이자 미래 정밀병기의 산실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해나갈 것이다.